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제 28 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보도자료

- 목차 -

I. 개요

II. 시상

III. 부산국제영화제 종합 결산

IV. 영화제 사업별 결산

i.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ii. 커뮤니티비프

iii. 동네방네비프

iv.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 OTT 어워즈

V.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I. 개요

1. 기본 개요

- 개최 기간: 2023년 10월 4일(수) ~ 13일(금)
- 상영관: 4개 극장 25개 스크린
 - 영화의전당,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대영(커뮤니티비프)
- 상영작: 269편
 - 공식 초청작 70개국 209편
 - 월드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88편
 - 월드 프리미어 80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8편
 - 커뮤니티비프 상영작 60편

2. 총 관객 수

- 영화제: 142,432명(좌석 점유율 약 82%)
- 커뮤니티비프: 11,092명
- 동네방네비프: 8,228명

3. 프로그램 이벤트

- 오픈토크 12회
- 야외무대인사 11회
- 스페셜 토크 2회
- 액터스 하우스 4회
- 마스터 클래스 1회
- 핸드 프린팅 1회
- 게스트와의 만남(GV) 252회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4.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요약

- 마켓 배지: 49개국, 918개사, 2,479명
- 부스: 23개국, 271개사, 98개 부스
- 아시아프로젝트마켓 미팅 횟수: 총 826건
- 부산스토리마켓 미팅 횟수: 총 1,000건
- 플랫폼부산 참가자: 24개국, 115명

5.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 총 참석인원	7,772명
- 영화제 국내게스트	2,903명
- 영화제 해외게스트	891명
- 마켓 국내게스트	1,383명
- 마켓 해외게스트	1,096명
- 시네필	1,499명

※ 단순 참가(방문)자 및 프레스 제외



II.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1] <더 레슬러> | 이취발 초두리 | 방글라데시, 캐나다

심사평: 올해 뉴 커런츠 10편의 영화들과 만나면서 10명의 새로운 감독들의 비전과 미학적 야심, 각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년 심사위원인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두 훌륭했기 때문에 두 편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올해 뉴 커런츠 수상작 두 편 중 한 편은 이취발 초두리 감독의 <더 레슬러>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마술적으로 풀어낸 <더 레슬러>는 환상적인 한 판 승부였습니다.

[수상작 2] <1923년 9월> | 모리 다츠야 | 일본

심사평: 다른 한 편은 모리 다츠야 감독의 <1923년 9월>입니다. 문혀버린 역사를 불러내서 정면으로 마주 대하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다른 8편의 영화에도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 심사위원들은 다른 8명의 영화감독의 이름을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여주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정성일(한국/영화평론가, 감독)
- 심사위원
아바 카헨(프랑스/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집행위원장)
에드윈(인도네시아/감독)
크리스티나 오(미국/제작자)
한준희(한국/감독)



2. 지식상

[수상작 1] <파라다이스> | 프라사나 비타나게 | 스리랑카, 인도

심사평: 첫 번째 수상작은 프라사나 비타나게 감독님의 <파라다이스>입니다. 프라사나 비타나게는 이 영화를 통해 부패한 정권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망치는지, 또 그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그들을 폭력으로 내모는지를 고발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시작해 호기심을 끝까지 끌고 나아가 아이러니한 결말을 안겨주는 작품입니다.

[수상작 2] <신부 납치> | 미를란 압디칼리코프 | 키르기스스탄

심사평: 또 하나의 수상작은 미를란 압디칼리코프 감독의 <신부 납치>입니다. 이 영화는 흥내 낼 수 없는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단순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며 키르기스스탄에 만연한 충격적인 악습을 고발하는 강력한 작품입니다. 영화가 손을 내밀며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 때의 가슴 가득한 흥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식상 심사위원

마르틴 떼루안느(프랑스/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

니시카와 미와(일본/감독)

이광국(한국/감독)

3. 비프메세나상

[수상작 1] <되살아나는 목소리> | 박수남, 박마의 | 한국, 일본

심사평: <되살아나는 목소리>에는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등 한일 전쟁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와 더불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까지 전쟁의 참상이 감독의 시선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일조선인 감독 박수남은 카메라와 함께 망각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박수남 감독은 그녀의 딸과 함께 자신의 필름을 디지털화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일본군 강제 징용자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고자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합니다. 모녀가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시선은 연결되고, 억압된 역사가 되살아납니다. 그들의 대화가 또 다른 목소리가 되어 들려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상작 2] <우리들의 공화국> | 진지양 | 싱가포르, 중국

심사평: 에량의 꿈과 유토피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두 평 남짓한 방에서 에량은 자신의 공화국을 선포하고 그곳을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공화국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대화, 음주, 노래가 넘칩니다. 섹스와 마약, 로큰롤이 시진핑과 마오쩌둥을 만나고, 미국 대중음악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만납니다. 이 작품의 백미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공화국'을 매우 작은 공간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자유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극히 좁은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도 독특하고 모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화국>은 하루를 살아갈 돈조차 없는 청년의 공허한 삶 속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하라 카즈오(일본/감독)
양케 레베케(독일/영화평론가)
경순(한국/감독)

4. 선재상

[수상작 1] <마이디어> | 전도희, 김소희 | 한국

심사평: 우리 심사위원은 SF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멜로드라마 장르의 혼성을 시도하고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그리면서도 완성도에 대한 놀라운 성취를 보여준 <마이디어>를 만장일치로 수상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층위의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수렴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 당사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이자 연출자인 전도희 감독의 섬세하면서도 집중력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높은 연기는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공동 연출자인 김소희, 전도희 감독의 앞으로의 작업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상작 2] <21주 후> | 나스린 모하마드퍼 | 이란

심사평: 우리 심사위원은 <21주 후>가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이란 여성의 현실과 고통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란뿐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란 점을 상기시킵니다. 임신 중단 결정은 자기 몸에 대한 작은 해방이지만, 여성은 현실에서 더 가혹한 큰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21주 후>는 이와 같은 주제를 전형적이지 않게, 영화적인 언어로 매우 간결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아가 모성애란 어떤 것인가, 절망적인 현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특별언급] <누구나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니까> | 세인 라이언 툰 | 프랑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심사평: 우리 심사위원은 개인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영화적인 언어로 승화시킨 미얀마 감독 세인 라이언 툰의 <누구나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니까>를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주인공 피오는 파리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이민자이자 퀴어이면서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의 과거는 간간이 환청처럼 들리는 사운드를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으며, 현재 그의 관심은 자유로운 몸짓의 언어입니다. 영화는 모든 사연을 구구절절이 설명하는 대신, 강렬하고 인상적인 음악과 절제된 이야기로 그려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모두는 주인공 피오가 진정한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얻기를 바라며, 세인 라이언 툰 감독의 작업에도 깊은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선재상 심사위원

장건재(한국/감독)

웨이슈준(중국/감독)

비앙카 발부에나(필리핀/제작자)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5. 올해의 배우상

[올해의 배우상-남자] 장성범 | <해야 할 일> | 한국

심사평: 작품에 대한 이해력과 캐릭터의 분석력 그리고 담백한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려면 연출과 시나리오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한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부분이 흥미로웠고 우리나라 사회의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올해의 배우상-여자] 오민애 | <딸에 대하여> | 한국

심사평: 절제된 연기 속에 인물의 섬세한 감정과 갈등의 변화들을 잘 표현해 주었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연기를 보여 주었다. 오랫동안 성실히 연기한 연기자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민애라는 배우를 더 많이 알기를 바란다.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정우(한국/배우)

한예리(한국/배우)

6. KB 뉴 커런츠 관객상

[수상작] <부모 바보> | 이종수 | 한국

7.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

[수상작] <더 드리머> | 아나이스 델렌느 | 프랑스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8.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수상작] <그 여름날의 거짓말> | 손현록 | 한국

심사평: <그 여름날의 거짓말>은 웃음과 교훈을 주는 코미디 영화의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고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십대 소녀가 진실을 밝혀야만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갇히면서 겪게 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세련되게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진실의 본질을 복잡하게 해석함으로써, 선부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 대신 등장인물의 대사처럼 오히려 "사랑의 힘"을 포용하기를 선택한다.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심사위원
굴바라 툴로무쇼바(키르기스스탄/영화평론가)
세바스티안 린드발(스웨덴/영화평론가)
김혜신(한국/영화평론가)

9.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수상작] <솔리드 바이 더 씨> | 파티판 분타릭 | 태국

심사평: <솔리드 바이 더 씨>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유연한 방식으로 전한다. 이미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은 물론, 시간의 흐름, 전통과 변화,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부드럽게 연결하여 확정할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심사위원
마크 쉘링(미국/영화평론가)
송은지(한국/프로그래머)
테루오카 소조(일본/수석 프로그래머)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10. LG 올레드 뉴 커런츠상

[수상작] <솔리드 바이 더 씨> | 파티판 분타릭 | 태국

심사평: 올해 뉴 커런츠의 새로운 상인 LG 올레드 뉴 커런츠상은 파티판 분타릭 감독의 <솔리드 바이 더 씨>입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LG 올레드 뉴 커런츠상의 취지와 같이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는 작품을 찾았습니다. 모두들 각자가 새로운 대답을 했고, 우리는 <솔리드 바이 더 씨>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9편의 영화에도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 심사위원들은 다른 9명의 영화감독의 비전도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11. LG 올레드 비전상

[수상작] <한 채> | 정범, 허장 | 한국

심사평: 독자적인 시각과 새로운 감각을 보여주는 영화에 주목하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채>를 선택하였습니다. <한 채>는 영민한 서사 구조로 인물들이 처한 피폐한 현실을 담담히 노출시키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하며, 인물들의 표정과 품성과 관계에 주목하게 만들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감정적 울림을 증폭시킵니다.

LG 올레드 비전상 심사위원

박인제(한국/감독)

장영엽(한국/영화기자)

홍은미(한국/평론가)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12. 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엠상

[수상작 1] <해야 할 일> | 박흥준 | 한국

심사평: 차곡차곡 쌓아 올려 기어이 묵직한 한 방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특히, 어느 캐릭터 하나 빠지지 않고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연기자들과 이를 이끌어낸 감독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수상작 2] <바암섬> | 김유민 | 한국

심사평: 섬에 구전되는 민담이 말과 소리를 입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영화로 확장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신세계입니다. 낯선 연기, 화면, 음악이 뱀처럼 스며들어 설득됩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엠상 심사위원

박용집(한국/감독)

이난(한국/감독)

이수연(한국/감독)

13. CGV 상

[수상작] <딸에 대하여> | 이미랑 | 한국

심사평: <딸에 대하여>는 모순된 엄마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모녀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 속에 소수의 문제를 더욱 보편적으로 공감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특히 관계를 다루는 방식의 세심함이 돋보이는 안정적인 연출과 배우들의 호연이 인상적인 이 작품에 CGV상을 드립니다.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14. KBS 독립영화상

[수상작] <장손> | 오정민 | 한국

심사평: 'KBS 독립영화상' 심사위원 3인 김초희 감독, 이진숙 프로듀서, 주성철 평론가는 만장일치로 올해의 수상작을 오정민 감독의 <장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영화의 오늘 - 비전' 부문 초청작인 <장손>은 3대로 이뤄진 대가족의 내밀한 관계를 건조하면서도 때로는 뜨겁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임권택의 <축제>(1996)나 박철수의 <학생부군신위>(1996)를 비롯해 장례식과 대가족이 엮이는 풍경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장손>은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영화 속 가족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싫건 좋건 우리 사회의 풍경으로 보다 폭넓게 확장합니다. 그 시간을 집요하고 치밀하게 채우고 있는 서사와 이미지의 품격도 단연 올해의 발견이라 부를 만 합니다.

KBS 독립영화상 심사위원
김초희(한국/감독)
이진숙(한국/제작자)
주성철(한국/영화평론가)

15. CGK 촬영상

[수상작] <장손> | 이진근 촬영감독 | 한국

심사평: 제 28회 부산국제영화제 CGK 촬영상을 작품 <장손>의 이진근 촬영감독에게 드립니다. 이진근 촬영감독은 조명과 워크플로우를 활용해 뛰어난 영화의 기술적 완성도를 보였으며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가족의 죽음과 삶을 중경과 원경의 섬세한 세공을 통해 영화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언급 1] <바암섬> | 김진표 촬영감독 | 한국

[특별언급 2] <딸에 대하여> | 김지룡 촬영감독 | 한국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심사평: 더불어 새로운 영상 언어로 심사위원들의 탄성을 자아낸 작품 <바암섬>의 김진표 촬영감독과 아름다운 화면과 심도 표현이 돋보인 작품 <딸에 대하여>의 김지룡 촬영감독에게도 특별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CGK 촬영상 심사위원

이선영(한국/촬영감독)

윤지운(한국/촬영감독)

이두만(한국/촬영감독)

16. 크리틱b상

[수상작] <지난 여름> | 최승우 | 한국

심사평: <지난 여름>은 조용한 풍경과 심심한 이야기를 지녔습니다. 동시에 모호한 경계가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수수함은 우리가 잊고 있거나, 알아도 구태여 돌아보지 않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지난 여름>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사람과 이별과 계절의 사이에 우리를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이 영화의 시적인 힘을 믿어보려 합니다.

크리틱 b 상 심사위원

문형석(한국/평론가)

김필남(한국/평론가)

구형준(한국/평론가)

17. 오로라미디어상

[수상작 1] <장손> | 오정민 | 한국

심사평: 제사와 장례식이라는 낯익은 풍경을 통해,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가족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리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까지 깊숙하게 들여오는 감독의 배포가 묵직하다. 배우들의 탁월한 앙상블과 장손이라는 제목을 인정하게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만드는 강승호 배우의 존재감 또한 반가운 일이다.

[수상작 2] <막걸리가 알려줄거야> | 김다민 | 한국

심사평: 지루하고 피곤한, 심지어는 애처롭기까지 한 요즘 어린이의 일상을 어린 소녀의 감쪽한 상상력으로 침투하여 주도적이고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독의 완성도 높은 이야기 구성이 발군이다. 동춘 역의 박나은 배우 외 어린이 배우들의 프로페셔널한 연기도 아주 인상적이다.

18. 왓차단편상

[수상작 1] <마이디어> | 전도희, 김소희 | 한국

심사평: 청각 장애인인 주인공이 겪는 일상 속 차별이나 불편함을 섬세하게 담아낸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였습니다. 영화적인 완성도가 높고, 영화를 아우르는 따뜻함과 자연스러운 배우의 연기가 잘 녹아든 작품입니다.

[수상작 2] <업보> | 최수혁 | 한국

심사평: 고전 영화를 재현해 낸 것 같은 독특한 촬영, 음악, 미술 스타일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위트 있는 표현력과 극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연출이 훌륭했습니다. 감독의 차기작이 기대됩니다.

19.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한 채> | 정범, 허장 | 한국

심사평: <한 채>는 서사를 장악하는 인물과 촬영 기법을 통해 치밀하게 직조된 연출을 보여준다. 서사의 모호함이 작품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인물의 숙명을 예견한다. 관객에게 끝나지 않을 여운을 선사하는 이 작품은 기묘한 인물과, 이를 표현하는 형식이 일치하는 드문 성취를 보여 준다. 이에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20.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 | 이혁래 | 한국

심사평: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는 '노란문'이라는 영화공동체의 흔적을 좇으며 90년대 시네필을 조명합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 시절을 돌아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란 무엇이며, 왜 영화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순수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1. 이춘연 영화인상

[수상자] 김지연 | 한국 | 프로듀서, 크랭크업필름 대표

이춘연 영화인상 심사위원
강제규(한국/감독)
심재명(한국/명필름 대표)
유지태(한국/배우)
정한석(한국/프로그래머)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Ⅲ. 부산국제영화제 종합 결산

1. 영화제의 본질에 집중하여 이뤄낸 성공적인 개최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 우려가 많았으나, 27년간 지속해 온 부산국제영화제의 저력으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좋은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서로 만나 대화 나누는 영화제의 본질에 다시 한 번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다.

2. 영화제를 빛낸 국내외 영화인 참석

영화제의 시작을 알린 '올해의 호스트' 송강호에 이어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인 한예리, 정우가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마지막을 함께한다. 주윤발, 립 베송, 판빙빙, 고레에다 히로카즈, 하마구치 류스케 등 해외 영화인을 비롯해 수많은 한국영화인이 참석해 GV, 오픈 토크, 야외무대인사 등을 통해 관객과의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3. 관객으로 가득 찬 상영관, 좌석 점유율 증가!

작년보다 선정작 규모는 줄었지만 74%였던 좌석 점유율은 올해 약 82%로 높아지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209편의 공식 선정작 중, 294회차가 매진되었고 총 142,432명의 관객이 252회의 GV와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했다.

4. 특별전에 대한 뜨거운 호응: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 인도네시아 특별전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미교포 영화감독과 배우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은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매년 개최를 희망하는 반응이 나올 만큼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인도네시아 영화의 르네상스]를 통해 12편의 장·단편 영화와 150여 명의 영화인이 영화제와 마켓에 참가한 인도네시아에 집중하여, 아시아영화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어 뜻깊었다.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5. 다채로운 야외 이벤트와 액터스 하우스 인기 폭발!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와 <주윤발의 영웅본색 周潤發之英雄風範>을 비롯한 12개의 오픈 토크와 <키리에의 노래>, <인도네시아의 빛나는 스타들>, <거미집> 등 11개 야외무대인사 그리고 각 1건의 마스터 클래스, 스페셜 토크가 관객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윤여정, 한효주, 송중기, 존 조가 참여한 액터스 하우스에서는 매 회 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과 이를 보며 놀라며 감동하는 배우의 모습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다.

6. 대관객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시도, p!tt 와 p!tt GROUND

'피트(p!tt)'는 공식 초청작 뿐 아니라 BIFF의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이고자 2022년에 처음 론칭되어 올해 2년차를 맞이했다. 굿즈숍을 포함한 관객라운지 p!tt GROUND을 만들고, 영화제의 프로그램과 결합된 스페셜 굿즈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 굿즈를 선보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많은 완판 사례를 만들어냈다. 특히 영화 굿즈 스토어 CGV 씨네샵, 부산 지역 브랜드와의 콜라보 제품은 영화계와 지역과의 상생을 지향하는 영화제의 의지로 기간 내내 흥행을 이루었다.

7. 다시 한 번 역대 최대 참가 이룬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18회를 맞은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은 전년보다 증가한 49개국, 2,479명의 참가자가 30% 커진 전시장을 가득 채운 98개 부스와 다채로운 산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졌다. 영화 공동제작·투자마켓인 아시아프로젝트마켓과 원작 판권 거래 마켓인 부산스토리마켓에는 총 1,826건의 미팅이 이뤄졌고, 피칭, 포럼, 세미나 등 총 30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ACFM 콘퍼런스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한 라이징필름즈 인터내셔널 어워즈에서 김미조 감독이 <경주기행>으로 수상하여 최대 10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게 됐다.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8.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된,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OTT어워즈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OTT어워즈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와 공동 주최하고 콘텐츠의 범주를 글로벌로 확대하여 한층 진일보한 콘텐츠 시상식의 시작을 알렸다. 전년 대비 5개 시상 부문이 추가되어 총 17개 부문이 운영되었고,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 베스트 크리에이티브상, 작가상, 남자 주연배우상 및 신인상 등을 수상하였고, 넷플릭스의 <특종>은 베스트 아시안 TV 시리즈 부문과 여자 주연 배우상까지 수상하여 화제를 모았다.

9. 관객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비프와 협업 확대로 새 국면을 맞은 동네방네비프

커뮤니티비프는 올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로 80%에 육박하는 좌석 점유율을 달성했다. 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은 역대 최다 신청자를 기록했으며, 수많은 영화인들의 참여와 국내 기관과의 협업은 화제를 모았다. 동네방네비프는 올해도 부산의 고유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동래향교를 비롯해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등 이색적인 장소에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영화의전당 주변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보다 가까이 호흡하며 축제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올해 동네방네비프 여의도편을 새롭게 선보이며 부산을 넘어 국내 주요 도시까지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어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IV. 영화제 사업별 결산

i .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1.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요약

- 기간: 9월 24일(일) ~ 10월 13일(금) (20일간)
- 주요 참가자: 교수진 3명, 강사진 8명, 펠로우 24명, 졸업생 5명, JIMFA 장학생 4명
- 참가국: 20개국(네팔, 대만, 레바논,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시리아, 싱가포르, 이란,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교수진
 - 교장: 스와 노부히로(일본/감독)
 - 연출 멘토: 김희정(한국/감독)
 - 촬영 멘토: 아르투르 주라브스키(폴란드/촬영감독)

2. 주요 프로그램

-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 DCP | 18min | Color
 - <핑크 트리> | DCP | 18min | Color
- ② 클리닉 및 멘토링
 - 시나리오 개발(이완민 감독)
 - ARRI 장비 트레이닝(로 이 츠 ARRI 스페셜리스트)
 - 카메라 핸드온 트레이닝(아르투르 주라브스키 촬영감독)
 - 데이터매니저 장비 트레이닝(조희대 테크니컬 슈퍼바이저)
 - 프로덕션 디자인 클리닉(안지혜 미술감독)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 편집 클리닉(최민영 편집기사)
- 영화음악 클리닉(박기현 영화음악감독)
- 사운드 클리닉(한명환 사운드디자이너, 김용국 사운드디자이너&폴리아티스트)
- DI 클리닉(조희대 테크니컬 슈퍼바이저)
- 교장 멘토링(스와 노부히로 감독)
- 시나리오 1:1 멘토링(이완민 감독)

③ 특강

- 촬영 특강 I,II(아르투르 주라브스키 촬영감독)
- 편집 특강(최민영 편집기사)
- DI 특강(조희대 테크니컬 슈퍼바이저)
- 프로덕션 디자인 특강(안지혜 미술감독)
- 폴리 특강(김용국 사운드디자이너&폴리아티스트)
- 사운드 특강(한명환 사운드디자이너)
- 영화음악 특강(박기현 영화음악감독)
- 시나리오 특강(이완민 감독)

④ 교수진 작품시사

- 김희정 감독 | <프랑스 여자>(2020)
- 아르투르 주라브스키 촬영감독 | <4235476335>(1997), <Close Up>(2018)

⑤ 교장 마스터클래스

- 스와 노부히로 감독 마스터클래스

⑥ MPA-BAFA 영화 워크숍: Bridge to Hollywood

- 특강: E. Bennett Walsh (E. 베넷 월시)
-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이하 MPA)와 함께 프로젝트 피칭 워크숍 진행
- 프로젝트 피칭 워크숍 심사위원: Stephen JENNER (Vice President), E. Bennett WALSH (Producer), Janice CHUA (Imagine Entertainment Vice President)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 ⑦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네트워크
- 졸업생 네트워킹 디너 진행

3. 장학 프로그램 수상 결과

- ① CHANEL X BAFA Promising Filmmaker 어워드

- 수상자: 사마라 사긴바예바 (키르기스스탄)
- 수상자: 사데크 에스-하키 (이란)

- ② ARRI 어워드

- 수상자: 아마르 마할잔 (네팔)
- 수상자: 이야오 켈시 주 (중국)

- ③ MPA 어워드

- 수상자(1등): 파스칼 아스마르 (레바논)
- 수상자(2등): 응우옌 판 린 단 (베트남)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ii. 커뮤니티비프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대축제 커뮤니티비프는 올해로 6년째를 맞아 공개 모집 당시 역대 최다인 80건을 기록한 '리퀘스트시네마'와 역대급 게스트 라인업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초고속 매진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열기가 높았다. 봉준호 감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마스터톡은 사상 최초로 3개 스폿에서 동시 진행되었으며, 애주가를 위한 색다른 심야상영 '취생몽사'는 프리미엄 로컬 주류와 음식을 곁들이며 <핑크 플로이드의 더월>, <그녀의 취미생활>, <넘버 3>를 영화감독, 배우와 함께 관람하고 공연을 즐겼다. 올해 새롭게 시도한 '남포피날레'는 시민 영화 퀴즈대회, 복고풍 패션 경연대회 등 관객이 참여하는 이벤트와 댄스 팀, 기타 듀오 등의 공연이 열광적 호응을 얻었으며, 한국고전영화 상영과 XR 체험 전시 등도 남포동을 들썩이게 했다.

1. 커뮤니티비프 요약

- 기간: 10월 6일(금) ~ 9일(월)
- 장소: 롯데시네마 대영,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남포동 비프광장

2. 주요 프로그램 및 내용

- 프로그램
 - 상영 작품 수: 60편 (장편 29편, 단편 31편)
 - 영화 상영: 36회
 - 게스트와의 만남(GV): 33회
 - 게스트 수: 100여 명
 - 관람자 수: 4,992명 (점유율 79.4%)
- 커비로드 (남포동 비프광장 및 비프거리 프로그램)
 - 야외영화상영: 12회
 - 야외토크이벤트: 12회 (게스트와의 만남 5회, 무대인사 4회, 토크쇼 3회)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 행사: 3회 (전야제, 개막식 중계, 남포피날레)
- 체험존: 8개
- 참가규모: 6,100여 명

○ 주요 내용

- 상영 프로그램: 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 커비컬렉션, 올데이시네마, 마스터톡, 취생몽사
- 야외 프로그램: 전야제, 야외영화상영, 야외토크이벤트, 남포피날레, 체험존 등
- 체험 프로그램: 내추럴 XR: Interactive Experience, 시민 영화 촬영 체험, 고전영화 낭독 체험, 씨네아트 체험(바다캔들, 유리컵, 소가죽지갑, 천연비누 제작 원데이클래스)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iii. 동네방네비프

동네방네비프는 영화제를 경험하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4월부터 마을영화만들기 프로젝트를 3개 구에서 추진했다. 6월과 8월에는 '모두모두비프'를 통해 부산시의 특별한 공간을 발굴해 영화제의 영역 확장은 물론 외국인 관객을 위한 6개 다국어 자막을 제공하며 언어 장벽 없는 시네마천국을 완성했다.

야경, 전통, 여행이라는 기본 테마에 축제, 음악, 로컬, 인권, 통일, 단편영화 등 장소별 맞춤형 큐레이션을 통해 일상에서 즐기는 지역 친화적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동네방네비프는 올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상영을 통해 지역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또한, 통일부, 부산인권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추후 전국 단위 기관과의 협업을 예고했다.

1. 동네방네비프 요약

- 기간: 10월 6일(금) ~ 9일(월), 12일(목)
- 장소: 부산시 7곳 + 서울시 1곳, 총 8곳
 - 수영구 밀락더마켓 (동네방네비프X부산광역시인권센터)
 -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 (동네방네비프X통일부)
 -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옥외광장 (동네방네비프X통일부)
 - 동래구 동래향교
 -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 중구 비프광장 야외무대
 -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격리대합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동네방네비프X국회문화극장)

2.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상영 작품 수: 장편 8편, 단편 8편 총 16편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 영화 상영: 23회 (뮤음 상영은 1회차로 산정)
- 게스트와의 만남(GV) 등 이벤트: 14회 (록 밴드 신인류 등 공연 5회 포함)
- 참가규모: 8,228명

3. 마을영화만들기

- 기간: 4월 ~ 10월 (6개월간)
- 상영: 10월 9일(월) 10:30
- 장소: 롯데시네마 대영 3관(상영), 롯데시네마 대영 4층 로비(전시)
- 주최: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영화의전당-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비프
- 프로그램
 - 상영 작품 수: 단편 3편(북구, 서구, 영도구), 메이킹 다큐멘터리 1편, 총 4편
 - 스틸컷 및 제작과정 사진 전시회



iv.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OTT어워즈

-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총 2,786명의 관객 동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시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OTT축제(International OTT Festival)와 협력해 기존 아시아 전역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에서 글로벌 콘텐츠로 범주를 확대
- <무빙> 베스트 크리에이티브를 필두로 <더 글로리>, <특종>, <약한영웅 Class 1>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총 17개 부문, 24개 작품 및 개인 수상

1.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OTT어워즈 요약

- 일시: 2023년 10월 8일(일) 18:00
- 장소: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2.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OTT어워즈 수상 결과

연번	시상부문	수상자
1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무빙
2	베스트 OTT 오리지널	약한영웅 Class 1
3	베스트 아시안 TV 시리즈	특종
4	베스트 리얼리티/버라이어티	베트남에서 축제를
		피지컬: 100
5	감독상	<만장적계절> 신 상
6	작가상	<무빙> 강플
7	주연 배우상(남)	<무빙> 류승룡
	주연 배우상(여)	<특종> 카리시마 타나
8	조연 배우상(남)	<타이완 크라임 스토리즈> 쉐 시링
	조연 배우상(여)	<더 글로리> 임지연
9	신인상(남)	<무빙> 이정하
	신인상(여)	<무빙> 고윤정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 – 13 October 2023**

10	베스트디지털 VFX 작품상	무빙
11	혁신상	환승연애 2
		박하경 여행기
12	뉴테크상	티빙
13	K 콘텐츠해외확산	VIU
		wavve Americas
14	OTT 산업유공	왓차
15	공로상	故 김종학
16	특별상	야기라 유아
17	인기상	문준휘
		버피 첸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V.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결산

2023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에는 49개국 2,479명이 참가하였다. 지난해 온라인 스크리닝을 위해 제공한 프레스 및 영화제 초청자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223명이 증가하여 역대 최다 참가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대비 30% 늘어난 전시장을 가득 채운 23개국 271개 기관 및 업체는 자국 및 자사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판매 및 홍보하였고, 특히 아시아프로젝트마켓에서는 선정된 13개국 30편의 장편극영화 프로젝트가 전년도 대비 약 17% 증가한 총 826건의 미팅을 진행하며 역대 최대 미팅 수를 갱신하였다. 부산스토리마켓에서는 총 50편의 한국과 아시아의 원작 IP가 총 1,000건의 미팅을 진행하였고, 개별 부스로 참가한 판권사 중 투유드림은 영상제작사와 이넷미디어와 영상제작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비즈니스 성과를 보였다. 이 밖에도 20여 개의 마켓 콘퍼런스와 1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플랫폼부산, 그리고 새롭게 마련한 프로듀서라운지 공간 등을 통해 국가별, 산업별로 특화된 정보 전달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영상·영화 제작 및 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요약

- 마켓 배지: 총 49개국, 918개사, 2,479명
- 세일즈부스: 총 23개국, 271개사 98개 부스
 -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오스트리아 국가관 포함 총 32개사 신규 참가
- 온라인 스크리닝
 - 마켓 스크리닝: 총 16개국, 42개사, 123편 (마켓 프리미어 10편)
 - 영화제 공식 선정작: 총 94편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2. 아시아프로젝트마켓

- 아시아프로젝트마켓 선정작 13개국 30편 선정
- 비즈니스미팅: 총 826건 (2022년 대비, 미팅 수 17% 증가)
- 총 참가사 수: 140개사 (196명 참석)
- APM 어워드 11개 부문, 7편 수상 (신규 어워드 2개)
- 제26회 아시아프로젝트마켓 어워드 수상 결과

어워드명	수상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국가
부산상	광기와 꿀맛같은 날들	아메드 야신 알 다라지	메이탐 즈바라	이라크, 캐나다
신마상	화이트 하우스 보태니스트	징이	산주올롱, 치아이	중국
ONE COOL 어워드	타오르는 섬	막불 무바라크	율리아 에비나 바라	인도네시아
CJ ENM 어워드	그거랑 사랑이 무슨 상관인가요?	히로세 나나코	기타하라 에이지, 고이데 다이주	일본
TAICCA 상	필리피냐나, 용기와 자유	라파엘 마누엘	제레미 추아	싱가포르, 영국, 필리핀
VIPO 상	몽골 말 죽이기	장샤오수안	탄 추이무이, 모줄린	중국
아르떼키노상	필리피냐나, 용기와 자유	라파엘 마누엘	제레미 추아	싱가포르, 영국, 필리핀
KB 어워드	첫 세계	윤단비	김기현	한국
ARRI 어워드	그거랑 사랑이 무슨 상관인가요?	히로세 나나코	기타하라 에이지, 고이데 다이주	일본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콩짜스튜디오상	필리피냐나, 용기와 자유	라파엘 마누엘	제레미 추아	싱가포르, 영국, 필리핀
노르웨이사우스 필름펀드상	몽골 말 죽이기	장샤오수안	탄 추이무이, 모줄린	중국

3. 부산스토리마켓

- 비즈니스미팅: 총 1,000건
- 총 참가사 수: 152개사 (198명 참석)
- 3개국 10개 기관 및 업체 부스 참가
 - 대만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프랑스 IP 연속 참가 및 피칭 개최
 - 투유드림, 메타크래프트, 시공사 등 부스 참가
 - 유관 국내외 기관 연속 참가 및 증대(대만콘텐츠진흥원, 일본영상진흥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4. 아시아영화펀드

- 아시아영화펀드 3개 펀드(장편독립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장편독립극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 장편독립다큐멘터리 AND펀드) 총 14편 지원
 - 후반작업지원펀드 신규 협력 파트너 부산영상위원회의 참여와 부산 기업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의 AND 펀드 제작비 신규 협찬
- 부산국제영화제 월드프리미어 상영(후반작업지원펀드 4편, AND펀드 1편)
- 장편독립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지원작 <몽골 말 죽이기>, 2023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어워드 VIPO상, 노르웨이사우스필름펀드상 수상



**2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23

5. 플랫폼부산

- 24개국 115명 참가
- 필름메이커스 토크, 프로듀서스 토크를 통해 영화 제작 및 연출, 공동제작, 후반작업서비스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 공유 등 독립영화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세션 및 신인 독립 영화인들 간의 교류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일본영상산업진흥기구(VIPO), 말레이시아장편극영화개발랩(myLab), 유럽영화진흥기구(European Film Promotion; EFP) 및 유럽-아시아공동제작워크숍 타이즈댓바인드(Ties That Bind; TTB) 등 유관 협력 기관과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 운영

6.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콘퍼런스

- 30개 콘퍼런스 개최(피칭 9개, 플랫폼부산 10개, 기술세미나 2개, 포럼 6개, 네트워킹 이벤트 3개)
- 라이징필름즈 인터내셔널 어워즈 신규 개최 김미조 감독의 <경주기행> 수상